

언론 권력의 정치경제학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의 사례분석

김승수*

(전북대학교 언론심리학부)

이 글은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을 사례로 하여 언론권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권력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의 통제를 배경으로 여론과 시장을 지배한다. 이들 세 나라는 강력한 매체 경제력을 가진 언론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예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베네주엘라는 사영방송이 기업과 노조를 선동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사가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을 겸영하여 시장 지배자가 된 이래 정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행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언론개혁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치경제학, 언론권력, 독점, 민주주의, 국가권력

1. 서론

1)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제권력, 정치권력, 문화권력 그리고 언론권력¹⁾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언론권력이 출현한지는 오래되었다. 그러

* kiss9839@hanmail.net

1) 이 글에서 사용한 '언론권력'이란 시장 지배적 매체기업이 대중적 여론 통제력과

나 현재와 같은 언론권력의 뿌리는 자본주의가 성장하여 유통 부분이 거대해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급속한 축적에 성공한 매체자본은 기업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끝내는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매체자본이 시장 지배력을 배경으로 국가권력에게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는 시민 사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준다. 많은 나라에서 언론권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정부, 국회, 사회 제도, 여론을 좌우한다. 언론권력이 국가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곧잘 들이대는 것이 '위기론'이다. 위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언론권력은 위기를 부풀려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더불어 정권의 무능력을 과장함으로써 시민과의 괴리감을 조성한다. 언론권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공격하고, 전복시킬 것을 바라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더구나 언론권력이 통제하는 매체기업은 사주와 종사자가 자본 증식의 논리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매체 상품을 만든다.

매체는 여론 그 자체가 아니며, 언론 그 자체도 아니고, 국민의 일반 의견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주의 견해, 국민 일부의 견해를 말할 뿐이다. 그럼으로 '매체기업=국민여론'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2001년 매체기업의 세무조사와 사주 구속에 대한 언론권력의 왜곡 보도,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정권 수립 이후 언론권력의 행태는 기득권 유지에 이들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이 뿐이 아니다. 언론권력에는 식민지 근성, 사대주의 뿌리가 온존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미국에 의지하여 풀어가려고 한다. 물론 미국의 현실적인 힘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언론권력은 민족 주체성이나 한반도의 평화는 외면한 채 미국의 일부 호전주의자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하였다.

언론권력의 원천은 소유 독점과 여론 지배이다. 언론권력은 시장 지배적

경제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과시즘 형태를 보이는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인 매체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업, 건설업, 유통업, 제조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곳에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 또는 경쟁자를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어느 누구도 이들의 횡포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시민언론운동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언론권력과의 맞대결을 회피한다.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 언론권력은 경제권력, 정치권력, 문화 권력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행세하는 언론과시즘이 되었다. 언론권력이 최악의 상태, 즉 극단적인 이윤과 권력의 추구 그리고 무책임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론과시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과시즘은 시장 지배적인 매체 독점체들이 재벌, 극우 정당, 극우 지식인 과 한 몸이 되어 정보를 조작, 왜곡하여 사회 여론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며, 국가권력의 중심축이 되는 사회 구조를 말한다. 언론과시즘 체제가 존재하는 나라를 보면 매체기업이 곧 재벌이고, 곧 국가권력인 경우가 많다. 이런 체제에서 언론권력은 정당의 역할을 하거나 ‘유사 정당’으로 조직, 운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권력은 극우 또는 보수 정당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여 권력의 한 고리를 잡는다. 이들은 정치, 이념, 경제정책 그리고 대외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한국,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이 대표적인 언론과시즘 체제의 국가이다.²⁾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진공 상태가 발생할 때 재빨리 국가권력을 낚아채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국정을 좌우해 왔다. 우리는 이런 언론권력의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제 식민지와 독재 시대의 망령이라 할 수 있는 언론권력의 폐기처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강요할 힘과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2) 한국에서 언론권력은 식민지 통치, 독재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원시적 자본 축적에 성공하였다. 이후 군부가 장악하던 국가권력의 시스템이 민간 엘리트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력시스템의 공백이 생겼다. 신문재벌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구 권력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틈타 대중적 영향력과 자본을 배경으로 국가 권력에 가장 근접한 힘을 행사하는 언론 권력으로 올라섰다.

된다. 이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힘을 숭배하는 언론권력을 누르고, 사람을 존중하며 진실과 평화를 추구하는 언론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늘 위기의 그늘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의 언론권력 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들 세 나라의 언론권력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방향이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한국 언론권력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국제적 자료를 모아 비교하고, 언론권력을 해체, 극복하기 위한 각 나라의 움직임을 교훈으로 얻고자 함이다. 공백으로 남아 있는 국제 비교론적 차원에서 언론 권력론을 정립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2) 연구문제와 방법

이 글은 소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하비(Harvey, 2002)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자.

짐작컨대 경쟁시장이 지배적이라는 신 자유세계에서 왜 모든 종류의 독점이 허용되며, 바람직스러운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가?

하비의 지적은 바로 매체산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언론권력이 매체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가장 경쟁적이어야 할 매체시장이 어떻게 소수 거대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있으며, 더구나 이들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첫째, 언론권력의 경제적 토대는 무엇인가?

둘째, 언론권력이 국가권력을 무슨 방법으로 지배 또는 통제하는가?

셋째,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의 언론권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필자는 이 연구에서 베네주엘라의 시스네로스 족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족벌, 영국의 머독 족벌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3나라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 나라 모두 강력한 언론권력이 구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세 나라는 매체기업의 재벌화, 독점화, 권력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언론권력과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네주엘라 언론권력은 보수 정당, 재벌, 미국 자본의 편을 들고, 합법적, 민주적으로 성립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습이 한국의 신문재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력화 시키려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 베네주엘라 언론권력의 행태는 한국의 언론권력의 행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이탈리아 언론권력에 주목한 까닭은 언론권력이 곧 국가권력을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인데다가,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언론권력의 폐기를 주장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권력을 연구한 배경은 첫째, 민주주의 이념에 집착한 나머지 매체의 사유화, 독점화를 방지해 놓은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체기업이 이들을 대신하여 언론의 자유를 독점하는 권리를 가진 듯이 호도하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볼모로 정보를 왜곡하는 횡포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영국은 좋은 연구 대상이었다. 둘째,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을 허용하여 매체시장이 2-3개 자본의 통제를 받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이차적으로는 연구자들이 축적한 자료들을 참조했다. 이 자료를 읽을 때 언론권력이 갖고 있는 매체 현황, 시장 지배력, 국가 권력과의 유착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치경제학을 활용하였다.

논문 구성을 보면 제2장에서는 언론권력을 일반 이론적 측면에서 설명하

였다. 제3장부터는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베네주엘라의 언론권력을 연구하였고,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이탈리아와 영국의 언론권력을 분석하였다.

2. 언론권력의 이론적 분석

언론권력의 정치경제학은 현대 시장경제 지향적인 매체시장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매체를 독점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국가권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언론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와 사회구조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매체 소유가 거대 자본에 집중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³⁾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매체자본과 정치권력이 통합 내지 연합하여 사회의 정보와 문화 공간을 사유화함으로써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거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며, 국가권력을 점거하는 현상은 불평등한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매체 독점체는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축적하고 권력을 누린다.

그렇다면 언론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매체 인력에 대한 통제, 이 세가지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언론권력은 수구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1) 매체경제력 지배

(1) 거대 복합화

매체산업은 급진적인 속도로 사유화, 복합화, 독점화, 세계화되고 있다. 특히 매체 거대 복합화(giant conglomeration)는 눈이 부실 정도이다. 이들은

3) 이에 대해서는 Mosco(1996)의 책을 참조.

에너지, 군수, 제조, 유통과 함께 거대 독점자본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이다. 규모와 범위의 경제 논리를 활용하고, 금융자본의 힘을 빈 걸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언론권력을 보자. 브라질 매체산업은 글로보 그룹의 사주인 마린호 가족, 아브릴 그룹의 사주인 시비타 가족이 지배한다. 이외에도 메스퀴타 가족, 프리아스 가족을 포함, 총 4개 가문이 매체시장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 중 글로보 그룹은 브라질 최대의 사영방송인 글로보 TV를 운영하며, 4대 일간지의 하나인 오 글로보를 발행한다. 이외에도 라디오, 잡지 등 안 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Straubhaar, 1998, p.70). 이런 매체력을 배경으로 글로보 그룹은 의회나 정부의 힘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체경제는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체 경제의 축이 일간지 중심에서 방송 중심으로 바뀌는 중이다. 일간지는 전반적으로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10~20대가 외면하고 있어 광고 수입도 원활하지 않다. 일례로 1985년 영국의 신문은 전체 광고시장의 21%를 차지하였는데 2001년에는 2% 포인트 떨어진 19%에 그쳤다. 라디오가 2%에서 5%로 급증한 것과는 대조된다(The Economist, March 6, 2003). 그래서 각국의 언론권력은 주력 사업을 방송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2) 매체 공급량의 지배

매체 독점체는 막대한 물량의 콘텐츠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통제한다. 일간지는 수백만 부를 발행하고, 주간지, 월간지, 서적을 발행하여 인쇄매체 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CATV, 인터넷방송은 대부분 독점 자본의 수중에 있다. 세계 각국의 매체 공급량 통제 수준을 비교해보자.

한국의 경우 전국 일간지 발행과 광고시장은 조선, 중앙, 동아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다른 일간지가 이들과의 경쟁에 처치면서 3대 일간지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증대하는 추세이다. KBS, MBC, SBS는 전체 방송시장의 약 60%, 지상파방송의 약 90%를 점유한다. 이들 6개 매체독점체는 한국

매체시장의 경제적 지배자로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대중문화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미국의 매체산업은 한국과는 다른 차원의 독점시장이다. AOL타임워너와 컴캐스트는 CATV 가입 가구의 40%를 점유하며, AOL타임워너, 제너럴일렉트릭, 뉴스 코퍼레이션은 케이블 뉴스채널을 독점한다(CJR, March/April 2003). 위성방송은 에코스타와 디랙TV가 복점한다. 라디오시장의 경우 클리

<표 1> 세계 각국에서 상위 3대 매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단위:%)

미국의 일간지		미국의 텔레비전 네트워크	
가넷 그룹(74개 일간지)	11.5	바이에컴	24.0
나이트리더(34개 일간지)	6.6	월트 디즈니	18.0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스	5.0	뉴스 코퍼레이션	15.0
INC(23개 일간지)			
(소계)	23.1	(소계)	57.0
독일 일간지		독일 지상파방송	
알렉스 스프링거	23.4	공영방송(ARD, ZDF 등)	42.7
WAZ	6.1	키르히 그룹	25.8
슈트가르트짜이퉁그룹	4.9	RTL / 베르텔스만	24.7
(소계)	34.3		93.2
이탈리아 일간지		이탈리아 지상파 방송	
RCA. Editor SPA	17.5	공영방송 (RAI 1, 2, 3)	48.0
Editoriale l'spresso	16.1	미디어 셋	41.6
몬티 그룹	6.4	-	-
(소계)	40.0		89.6
영국 일간지		영국 지상파 방송	
뉴스 인터내셔널	37.0	공영방송 (BBC1, 2)	40.8
(머독 소유)		칼턴, 그라나다 (ITV)	35.6
미러 그룹	23.0	채널4	9.9
유나이티드&미디어	14.0		
(소계)	74.0		(91.4)
한국의 일간지		한국의 지상파 방송	
조선일보	29.1	MBC	39.5
중앙일보	24.2	KBS	26.6
동아일보	21.5	SBS	21.0
(소계)	74.8	(소계)	87.1

캐나다 일간지		프랑스 지상파 방송	
사우스-홀린저 그룹	48.2		
퀘벡선 미디어 그룹	15.4		
톰슨 그룹	12.4		
(소계)	76.0		
프랑스 일간지		프랑스 지상파 방송	
Les Editons P Amaury	43.5	공영방송(F1, F2 등)	42.9
Socpress	24.3	TF1	35.6
르 몽드	17.3	M6	12.9
(소계)	85.1	(소계)	91.4

- 1) 미국의 자료는 하루 일간지 발행량을 5,500만 부로 산정했을 때 수치임.
 - 2) 각국의 매체시장 구조가 다르므로 위에 제시한 수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음.
 - 3) 일본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가 77%를 차지함.
 - 4) 한국의 일간지 시장 자료는 2002년 10개 전국 종합 일간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출처) 방송위원회, 독일의 언론합병 규제 개혁 논란, 심영섭, 2003. 『신문과 방송』, 7월호, 126쪽. *Media Concentration Control and the Press*, by Grundwald, A. 2002. Athens:ENPA,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어 채널이 라디오 방송 량의 30% 가량을 통제한다. 다만 네트워크의 텔레비전 가구 도달률을 제한하고, 지방일간지와 지역방송사의 겸영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매체독점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6.2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미국도 다른 나라처럼 매체독점을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언론권력이 창출될 전망이다.

(3) 매체재정의 지배

언론권력은 거대한 매체를 매개로 많은 광고비를 흡수함으로써 매체 재정을 지배한다. 이들은 광고주에 너무 종속되고, 경쟁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체산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료 모형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수익 모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대체할만한 재원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체 독점체는 더욱 광고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 광고주의 이익을 지면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잘 반영하여 수용자를 설득시킬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4) 금융자본과 광고주 예측성

그러나 매체독점 자본은 절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매체 독점체는 시티뱅크, 모건 등과 같은 거대한 은행을 이사로 두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자금을 이들에 의존한다. 더구나, 보험회사, 연금투자사(pension funds), 투자회사도 매체독점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Miller, 2002, p.236). 금융자본은 늘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매체의 인수와 합병이 벌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금융자본의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매체기업들이 다른 매체를 대거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은행이나 투자회사로부터 빌리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체자본의 금융종속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매체 독점체들이 언론권력을 쥐고는 있지만 불안정한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금융자본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권력의 통제

(1) 직접적인 정권 장악

가장 원시적 형태의 언론권력은 스스로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언론권력자들은 돈, 정보, 인맥을 무기로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에 참여하여 국가권력의 중심에 들어간 후 선거전에 자신의 매체를 총동원하여 승리한다. 반대파에 대해서는 갖은 이유로 비판하고 공격하여 무력화 시킨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같이 정권과 언론권력 모두를 장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격렬하게 저항하면 빠져나갈 곳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권력은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2) 여론조작을 통한 국가통제

매체 독점체는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여 정권의 향방, 인사,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그 첫번째 방법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동조자를 지지, 찬양하는 방식이다. 언론권력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국가권력 통제는 자기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당이나 정권에 자금을 대고, 또 그런 곳에 자신의 대리인을 세워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언론권력은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기업을 지지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사주의 뜻에 복종하도록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때 보여준 매체복합기업의 행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클리어 채널의 행태를 보자. 이 회사는 전국에 걸쳐 1,214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하는 독점체이다. 전국 라디오의 절반가량을 독점하는 클리어 채널은 조지 부시를 비난한 팝그룹 덕시척스의 음반을 3월부터 방송 금지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클리어 채널은 라디오를 동원하여 시민의 반전 여론에 맞서 부시와 전쟁을 옹호하였다. 이것은 2003년 6월 2일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 개정에서 부시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The New York Times*, March 31, 2003. p.CI).

두번째 여론 조작 방식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반대자를 비난, 공격하는 것이다. 언론권력은 노선이 틀린 후보나 정당 또는 정권을 집요하게 음해하고 비난하면서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언론권력이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이들의 개혁 정책을 저지하여 자신들과 동조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이 크다. 언론권력자는 자신의 매체를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흔하다. 보글(Vogl, 2001)은 이렇게 썼다.

매체사주는 자기가 가진 매체를 동원하여 사업적, 정치적 반대파의 뒤를 캐서 모욕을 주는 일이 흔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자 정치인인 팻 뷰

캐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 석유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중동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둬도 좋은가?” 이것은 석유자본, 군사자본의 이익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은연중 비판하는 깜짝 놀랄 ‘도발’이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가 들고 일어나 뷰 캐넌을 집중 성토했기에 따라 그의 정치적 수명은 다하고 말았다.

(3) 이권과 자금의 제공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은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이들은 고비 때마다 유착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한다.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은 역시 금전 관계이다.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어보자.

언론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려울 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박지원 대변인이 다 들어주었는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비판한다. 한 신문사는 특히 심하다. 거액의 대출을 부탁해서 곤혹감을 표시했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래서 대출을 해결해 주니 또 다른 건을 부탁하면서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이런 식으로 세 차례를 반복했다(김대중 대통령 당시 보좌관의 증언, 『일요신문』, 2003. 5. 5).

이렇게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서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권을 주고받는다. 거대한 매체기업 이외에도 엄청난 부동산과 증권을 갖고 있고, 다수의 자회사까지 거느린 언론권력은 이권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반대로 언론권력은 자신의 재산이나 이권을 보호, 증대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다양한 명목으로 자금을 대기도 한다.

3) 인적 통제

족벌 지배는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매체기업의 공통된 특징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부터가 족벌 소유이다. 사주, 부인, 아들이 번

갈아 가면서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경영 전권을 장악한다. 다만 이들을 족벌 매체로 간주하지 않는데 그것은 사주가 편집국 일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을 비교적 잘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주식이 공개되고, 경영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신문기업을 제외한 매체 독점기업은 대부분 사주, 부인, 아들, 딸, 사주의 동생들이 소유권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족벌 지배체제이다.

한편 언론권력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사람은 적극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할 정도로 비판한 후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쫓아 버린다. 기자건 정치인이건 간에 예외가 없다. 이들은 극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우파를 모아 세력화 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언론권력의 지배와 이익에 털끝만치라도 반대하는 종사자에게는 가차 없이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다. 좋은 사례가 한가지 있다. 1999년 CNN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피터 아넷 기사를 단칼에 날려 버린 사건이다. 그의 보도가 군부의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넷 기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벌일 때 미군 병사들이 라오스로 탈출하자 이들 군 도망병을 동료 미군이 신경가스로 독살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하였다(김진화, 2003). 그러나 국방부, 재향군인회, 베트남 전우회가 아넷을 파면하라고 들고 일어났다. 그가 허위로 보도한 것도 아닌데 CNN은 군부의 요구에 굴복, 자신을 세계적 매체로 키워 놓은 아넷 기사를 파면한 것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미국 매체 독점체는 반전을 말하는 사람을 규탄하는 일에 앞장 서는 등 ‘국군의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피터 아넷 기사는 이라크 국영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계획은 실패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군부가 다시 들고 일어나자 아넷 기사를 계약 고용한 NBC뉴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는⁴⁾ 아넷 기사를 해임해버렸다. 이외에도 CBS 프로듀서는 부시 정권의 외교 정책을 히틀러의 것과 비교했다는 죄목으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사는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해

4) CATV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는 지분의 50%가 뉴스 코퍼레이션에 있다.

고당했다(이광석, 2003).

이상에서는 언론권력의 일반적 속성이 각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다음 장부터는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을 사례로 언론권력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들 나라는 언론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한 사례이다. 베네주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일간지와 방송사가 석유자본의 지지를 받고, 민간 정권을 쓰러뜨리고자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일삼다가 드디어는 일부 군 세력과 합세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이탈리아는 최고 부자의 하나이자 매체재벌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아예 총리가 되어 정치권력-언론권력-경제권력 모두를 장악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영국의 머독 역시 국가 권력을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이러한 언론권력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3. 베네주엘라 언론권력

베네주엘라 언론권력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몇 개 재벌이 미국 독점자본을 배후로 두고 과두 체제를 형성하여 정부, 의회, 군부, 노조, 매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 지향적인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Hugo Chávez Frias) 정권이 서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펼치자 미국이 통제하는 베네주엘라 국영석유회사,⁵⁾ 군부, 매체재벌, 노조가 합세하여 반정부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김광진(2003. 7. 4)은 2001년 12월부터 2개월간 일어난 총파업의 기괴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5) 베네주엘라는 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석유 매장량은 엄청나다. 그러나 석유 이권은 모두 미국 석유 재벌이 갖고 있고, 몇몇 국내 재벌은 떡고물을 챙겨 자기 호주머니를 불렀다. 자연히 국민 경제는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5살 아래의 어린이 5%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5인 가족 최저 생활비가 월 585달러인데도 대부분의 국민은 120달러 밖에 벌지 못한다. 이것은 경제, 정치, 군사, 문화의 미국 예속에 따라 국부가 미국으로 유출된 결과이다. *San Antonio Express-News*, 2003. 4.27, p.30A.

미국계 기업, 미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 노조와 상류층이 주도가 되어 벌였던…… 총파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 풍경이었다. 그들이 입고 나온 깨끗한 옷, 차베스 퇴진 구호가 화려하고 예쁘게 그려져 있던 현수막,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고급 선글라스, 두 달간의 기간 동안 파업을 계속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던 모습…….

중산층 이상의 파업 동조자들은 결국 군부와 합세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연히 민간 정부를 뒤엎는 시도였다. 2002년 4월에 벌어진 쿠데타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적 독점 자본이 소유하는 5개 사영방송이 쿠데타를 기획하고, 선동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선전선동은 2003년 2월까지 계속되다가 차베스 정권의 견제로 주춤한 상태이다.

1) 매체경제의 지배

시스네로스(G. Cisneros) 그룹과 펠프스(Phelps) 그룹이 복점 체제를 형성, 베네주엘라의 매체 시장을 지배해왔다. 이들은 전형적인 족벌 소유, 족벌 경영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5개 방송사, 10개 일간지가 운영되고 있다. 시스네로스 그룹은 베네주엘라 매체의 절반을 점유하는 막강한 언론권력이다. 사주인 구스타보 시스네로스 족벌은 주목의 대상이다. 이 족벌의 재산은 무려 40억 달러에 이른다(*Fortune*, March 17, 2003. p.130).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5개 방송사와 10개의 전국지 가운데 한 개를 제외 한 9개 신문기업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레몬느(Lemoine, 2002)에 따르면 이들 14개 매체기업은 베네주엘라의 영성한 정당구조, 정보 독점을 배경으로 정당 기능을 했다. 사적 독점 매체는 서민적이고 진보적인 차베스 후보 낙선에 사활을 걸다가 드디어는 정치군부와 합동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군부, 석유산업, 매체재벌들이 2002년 4월 1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국 정부와 매체는

<표 2> 시스네로스 족벌의 매체 관련 소유 상황

회 사	영 역	사 업 본 거 지
Venevision	사영 텔레비전 방송사	베네주엘라
Venevision International	영화/프로그램 공급사	미 국
Univision	22개 TV방송사	미 국
Univision Music Group	음반, 출판	
TeleFutura Network	23개 방송사 19개 제휴사	미 국
Galavision	스페인어 CATV네트워크	미 국
Directive Latin America (50% 지분 소유)	위성방송	28개 국가를 상대로 영 상 및 오디오 서비스 제공
America Online (40% 지분 소유)	AOL Brazil AOL Mexico AOL Argentina AOL Puerto Rico	
Disa Records (50% 지분 소유)	음반, 출판	멕시코
Rodven	CD,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제조	
Ibero-American Media Parters (IAMP)	매체 투자 회사	중남미, 스페인, 포르투 갈
Claxson Interactive (45%)	14개 유료 채널 Playboy International(80%) Chilevision TV 네트워크	중 남 미
Pueblo Xtra International	식품/비디오 체인	푸에르토리코, US버진 아일랜드
Eccelera Technology & Internet Holdings	인터넷 관련 벤처 캐피탈	중남미, 스페인, 포르투 갈
Panamco	코카콜라 병 제조	베네주엘라
Spalding	스포츠용품 제조	베네주엘라
Evenflo	유아용품 제조	베네주엘라
Los Leones del Caracas	프로야구단	베네주엘라

(출처) <http://www.ketupa.net/cisneros.htm>

쿠데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시민과 노동자를 선동하여 파업과 시위로 내본 노조 연맹위원장 등은 미국으로 출행량쳤다.⁶⁾

6) 4·11군사 쿠데타 사태를 보도한 미국 매체를 보면 가관이다. 뉴욕타임스는 4.13

언론권력의 핵심은 구스타보 시스네로스가 사주인 시스네로스 그룹이다. 이 그룹의 힘은 지상파 사영방송인 베네비전(Venevision)에서 나온다. 스페인 권에서는 인쇄매체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훨씬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사를 소유한다.

시스네로스 그룹은 베네주엘라의 매체시장을 지배할 뿐 아니라 중남미, 미국, 스페인에 걸쳐 방대하게 투자한 다국적 기업이다. 그러나 역시 시스네로스가 언론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베네비전 덕택이다. 시스네로스는 RCTV, Globalvision, Televen, Meridiano와 함께 방송재벌을 구성하여 정보와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베네비전은 AOL-타임워너, 코카 콜라, 피자헛, 플레이보이 등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미국 의존적이다.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있는 일간지도 공공연히 차베스 정권을 공격하였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자본과 언론권력을 축적한 4~5명 정도의 소수 언론 지배그룹이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3월21일 엘 나시오날지는 차베스 대통령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임을 실트했다고 비난하였다. 일간지나 사영방송은 아예 차베스를 이디 아민, 무솔리니,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하였다(Media Worldwide, 2003, 제42호).

2) 매체인력의 통제

베네비전을 비롯한 매체재벌의 소유와 경영은 전적으로 족벌 체제이다.

일자 사실에서 차베스의 퇴진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 신문은 군사 쿠데타가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고 주장하고, 차베스와 같은 독재자는 더 이상 베네주엘라에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썼다. 4월 16일 쿠데타가 실패로 끝날 조짐을 보이자 뉴욕타임스는 재빨리 말을 바꿨다. 아무리 차베스가 나쁘다 해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하고, 차베스가 좀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라고 훈계까지 하였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4.14일자 사설을 내고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여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와는 정반대의 논조이다. 그런데 두 신문 모두 미국은 이번 군사 쿠데타에 개입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인, 아들, 딸, 며느리가 주요직을 꿰차고 보도의 방향과 편성을 조정, 관리한다.

3) 민주적 합법 정부의 전복 시도

독점 매체기업이 재벌, 노조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부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희귀하지만 심각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군사 쿠데타는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세계화와 대미 종속을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그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후, 재벌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가졌다. 베네주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 석유 재벌도 상황이 심상찮음을 알았다. 미국이 베네주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것과 맞먹는 양이다. 미국은 특히 차베스 정권이 탈미 노선을 걸으면서 쿠바의 카스트로,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못 마땅히 여겼다. 더욱이 콜롬비아 반군을 지지하는 차베스는 미국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더구나 2001년 11월에 차베스 대통령은 정권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한 후 농업개혁법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석유채굴에 관련된 합작회사의 사적 통제를 금지하는 석유채굴법을 제정하였다(*The Nation*, January 13, 2003). 이것은 석유산업을 통제하는 지주회사인 PDVSA를 국내 족벌기업과 미국 석유회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목적이었다. PDVSA는 국영 석유회사의 지주회사로 엄청난 이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만 국영일 뿐 사실상으로는 국내의 석유재벌, PDVSA의 경영진과 역대 정권, 미국 석유회사의 사금고에 불과했다. 이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석유채굴법이었다. 이 법은 베네주엘라, 미국 그리고 스페인의 석유 재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석유회사는 이전보다 3배의 가격을 주어야 베네주엘라 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더구나 차베스 정권은 석유 대금을 현물로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달러로 결제하던 관행을 깨뜨린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차베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시작하였다 (*The Nation*, May 6, 2002). 베네주엘라 지배 세력도 미국을 배후로 하여 군사 쿠데타를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PDVSA는 종업원을 선동,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총파업을 지원하였다. 석유채굴법으로 경제위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PDVSA는 파업을 선동함으로써 베네주엘라를 경제위기로 몰아넣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PDVSA의 파업에는 노조, 사영방송, 군 일부가 가세한 쿠데타로 연결되었다.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이들 세력은 이른바 ‘민주 연대’를 조직하여 쿠데타를 직접 이끌었다. 군사 쿠데타는 사영방송을 비롯한 사적 매체의 도움이 컸다. 베네비전, 글로보비전, RCTV, Televen은 4월 쿠데타가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차베스 타도를 선동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냈다. 이들은 석유재벌이 돈을 댄 선동적인 광고를 실었는데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 거리로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하면서 시민들에게 차베스 정권의 타도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였다(Klein, 2003). 이들이 차베스와 시민을 분리하기 위해 쓴 논리는 ‘차베스가 쿠바식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차베스 정권=공산주의라는 등식을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폭력적 증오감도 부추겼다(Wilpert, 2003. p.104). 사영방송은 시민을 두 편으로 갈라 대결을 조장하는 전통적인 ‘분리와 통제’의 방식을 동원하였다(*Chicago Tribune*, December 11, 2002).

2002년 4월 베네주엘라를 지배하는 석유재벌은 매체재벌, 군부, 부정부패로 찌든 노조와 합세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쿠데타는 시종일관 사영방송이 선동하고, 석유재벌은 자금을 대고, 정치군인은 무력을 행사한 것이다. 노조는 파업과 태업으로 쿠데타를 도왔다. 4월 쿠데타는 독점재벌이 통제하는 사영 매체의 악의적인 선전선동이 큰 기여를 하였다. 쿠데타가 시작되기 전부터 5개 사영방송사는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가서 반정부 시위를 하세요!’라는 광고를 버젓이 실었다. 광고주는 석유재벌이다. 석유산업은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광고비를 대면서까지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하루에 차베스 축출을 요구하는 데모를 지지하는 광고가 무려 700개나 나왔다(*The Nation*, March, 2003).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끊임없이 차베스 축출

의 주문을 외운다. 4월 쿠데타 과정에서도 언론권력자는 푹푹 멍쳐 차베스 전복에 앞장섰다. 예를 들어 사영방송사는 반 차베스를 외치는 군중 데모만 생중계한 반면 친 차베스 군중의 데모는 중계하지 않았다.

4월 12~13일 쿠데타가 벌어진 저녁, 베네비전은 쿠데타 세력의 본거지였다. 베네주엘라 방송협회회장이자 기업가인 칼모나(Carmona)는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쿠데타에 개입하였다. 라이히(Reich, O) 국무부 중남미담당 부장관은 중남미 주재 미국 대사들을 소집하여 쿠데타 지지를 지시하였다. 라이히는 쿠데타 세력의 핵심인 시스네로스 그룹의 구스타보 시스네로스와 두 번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The Nation*, August 5, 2002). 시스네로스는 원래 차베스와 죽이 잘 맞았던 사람이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도입하자 고개를 돌렸다.

차베스 대통령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죽었다’, ‘망명했다’ 하는 온갖 소문이 나돌았지만 무사히 대통령 궁에 돌아왔다. 이것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신호이자 베네주엘라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영방송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프리티 우먼>이나 <툼과 제리>를 틀고 있었다(*The Nation*, March 3, 2003).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계속 일어났지만 텔레비전은 이런 소식을 전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국영방송인 채널 8만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보도를 하였다.

미국 석유자본과 결탁한 베네주엘라의 석유재벌, 매체재벌, 부패한 군부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차베스 민간정권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차베스 대통령이 칠레와 자메이카 민간정권의 붕괴를 교훈삼아 대비한 것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그는 일찍부터 군부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는 군부를 장악하여 또 다른 쿠데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 둘째로 차베스는 ‘볼리바리언 서클(Bolivarian Circles)’이라 부르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것은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13,000개에 이르는 대중조직인데, 후에 차베스 전복 세력에 맞서 전위대 노릇을 톡톡히 하였다. 셋째는 석유재벌의 준동을 제압하면서 현금 흐름을 장악, 노동자계급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였다(Tucker, 2003, p.14). 넷째는 시민단체, 노조,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의 소규모 매체를 만들어 시민 중심, 공익 중심의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신문 재벌과 방송재벌의 여론 조작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 크게 효력을 보였다.

4. 이탈리아 언론권력

이탈리아의 총리이자 언론권력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나만이 이탈리아를 좌익의 구렁텅이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탈리아판 색깔론으로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 권력을 한 손에 쥔 베를루스코니는 사익을 위해 국정을 유린하고, 여기에 자신이 거느린 매체 제국을 동원함으로써 언론파시스트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어떻게 이탈리아의 언론권력이 되었는지를 규명해보자.

1) 매체경제의 지배

이탈리아는 금융, 산업, 문화를 지배하는 3대 독점자본집단이 있다. 첫째는 베를루스코니이고, 둘째는 베네데티(C. de Benedetti)가 있으며, 셋째는 아그넬리(Agnelli)가 있다. 베를루스코니 가족은 Fininvest/Mediaset를 소유하고, 베네데티 가족은 재벌그룹인 Compagnie Industriali Riunite(CIR)과 Finegil그룹을 통제한다. 이들 재벌은 거대한 매체기업인 L'ESPRESSO Group를 운영한다. 아그넬리 가족은 지주회사인 Giovanni Agnelli & C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피아트 그룹의 지배주주이다. 이들은 유럽 최대의 매체지주회사인 RCS EDITORI를 운영한다. 이들 3대 매체재벌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매체 독점체의 지배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이탈리아의 일간지와 방송사는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한 재벌이 갖고 있다. 피아트그룹의 사주인 아그넬리(G. Agnelli)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인

<표 3> 이탈리아 매체시장의 지배구조

자 본	지주회사/ 관리회사	산 하 매 체	시장점유 율(%)
Fininvest	Mediaset	아래 <표4>	
HdP (금융트러스트)	RCS미디어 그룹	Corriere della Sera(일간지) La Gazzetta dello Sport(일간지)	
지오바니 아그넬리사 (피아트 사주)		La Stampa(일간지) Corriere della Sera(일간지) EL Mundo(일간지, 50%) La Gazzetta dello Sport RCS Periodici(출판 겸 잡지사): Oggi(주간지) 등 3개 잡지 RCS Pubblicita(광고회사) ICP(옥외 광고회사, 50%) RCS Diffusione(신문 등 유통회사): 전국에 37 개 대형 서점 운영 RCS Sport(스포츠 판촉 및 운영) RCS Web, Ediphonet(온라인회사): 프로축구 클럽, 여행사, 전화회사, 양조장도 소유함	17.5
Editoriale L' ESPRESSO 그룹		La Repubblica(일간지) Gazzatta di Mantova 등 17개 지역일간지 L'Espresso(주간지), 3개 잡지 Radio DeeJay 등 3개 라디오 DeeJay(디지털 음악채널) Kataweb(e비즈니스)	16.1
정부		RAI1, RAI2, RAI3(지상파TV) Radio1, Radio2, Radio3,	48.0
몬타-Riffeser 가족	Poligrafici	Il Resto del Carlino Il Giorno(일간지) La Nazione(일간지)	6.4
Caltagirone그룹		Il Messaggero, Il Mattino	

(출처) *European Media Ownership*, by Williams, G, 2002. Brussels:EFJ
Media Concentration Control and the Press, by Grunwald, A. 2002. Athens: ENPA
The Italian media landscape, by Molle et al. 2003. EJC.

<표 4> 베를루스코니의 Fininvest 제국

회사	소유/투자회사	계열 매체	사업내용
Fininvest (지주회사)	미디어셋 (48.6%지분)	Italia1, Rete4, Canale5	지상파 사영방송 시청점유율(43.1%), 광고점유율(60%)
	Grupo Telecinco (40%의 지분, 스페인)		Telecinco(사영방송), Publicspana(광고회사) Estudios Telcinco(영상 제작사)를 소유함
		II Giornale	일간지, 베를루스코니 동생이 사장
		II Foglio	일간지, 베를루스코니 부인이 사장
		Medusa Films	영화사, 이탈리아 최대 영화제작사 겸 수입사
		Penta(50%)	영화배급사
		Cinema 5	전국 영화관 체인
		Blockbuster Italia	전국 최대의 비디오 대여 체인
		AC밀란	프로축구 구단
		라디오이탈리아 에디토리알레스퍼 CNR AGR	전국 라디오 네트워크 광고회사 신디케이션 뉴스통신사
		파노라마	최대의 주간지
		퍼부리탈리아	광고회사(텔레비전 광고대행 시장 독점) 이탈리아 전체 광고시장의 42% 지배
		몬다도리(50.3%)	50개 잡지사, 출판사 소유, 서적 발행시장 40% 점유
		Albacom(19.5%)	유선전화회사
		Blu(9%)	무선전화회사
		Pagine Utili	전화번호부 발행회사
	Mediolanum		종합보험회사
	Mediolanun Vita		생명보험회사
	Edilnord		부동산 투자 및 건설회사
	Cantierier Riuniti Milanesi		부동산 투자 및 건설회사
La Standa		백화점 체인	
Supermercato		수퍼마켓 체인	

Corriere della Sera의 주주이다. 석유재벌인 A. Monti도 일간지를 운영한다.⁷⁾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합쳐도 베를루스코니의 매체제국을 능가하지 못한다. 다음 자료에서 보듯이 베를루스코니는 Fininvest Holding Company를 통해 무수한 매체와 기업을 소유하는데, 매체기업의 주식 가치만 해도 총 72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베를루스코니의 축적은 1969년 Edilnord라는 회사를 차려 부동산과 건축 개발 업에 뛰어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종의 부동산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엄청난 돈을 벌자 베를루스코니는 매체산업에 진출하였다. 그는 전국 대상의 방송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였지만 방송법 규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베를루스코니는 편법으로 여러 지역에 방송사를 설립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마치 전국 방송처럼 운영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당 출신인 크락시(Craxi)⁸⁾ 총리와 연대하여 법을 개정하고, 전국적인 사영방송을 소유할 수 있었다.⁹⁾ 그러나 3개의 사영방송을 독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베를루스코니는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크락시 총리는 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베를루스코니는 곤경에서 빠져 나왔다.

-
- 7) 이탈리아 매체법 제2조에 따르면 대기업은 일간지를 계열 기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재벌기업은 일간지를 주식회사로 바꾸거나 상장함으로써 기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선필(2001)의 글 참조.
- 8) 베를루스코니는 크락시 총리의 아들인 베티노를 자신이 운영하는 AC밀란의 이사로 임명하였다. 또 그는 베티노와 그 부인을 자신의 두 아들의 대부(godparents)로 삼았다.
- 9) 1990년 방송법 개정은 베를루스코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소유 및 시장 독과점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전국 대상의 텔레비전 채널 수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한 규제이다. 거기에는 시청자 점유율 제한 조항은 아예 없다. 방송법에서는 전국 일간지 발행의 16%를 넘는 신문기업은 텔레비전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으며, 8~16%의 점유율을 가진 신문기업은 1개의 텔레비전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다. 또 8% 이하의 신문기업은 2개의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법은 베를루스코니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그는 3개의 텔레비전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일간지 소유가 금지되자 소유권을 동생한테 넘겼다.

베를루스코니는 핀닌베스트를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96%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산하에 미디어셋을 만들었다. 미디어셋은 일간지, 방송사, 광고회사, 영화사, 음반사, 비디오 체인, 출판사 등 없는 것이 없다. 이 중 3개의 사영방송은 베를루스코니가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원천이다.¹⁰⁾ 그는 이 세 채널을 이용하여 총 43%의 시청률을 확보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손색이 없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매체산업 이외에 금융, 유통, 건설에도 상당한 이권을 갖고 있다. 그는 미디어라움 등 보험회사를 갖고 있으며, 연금 펀드, 투자회사 등 다수의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한편 스포츠에도 투자하여 가장 인기 있는 축구구단인 AC밀란의 구단주이며, 하키, 배구 클럽도 운영한다. 베를루스코니가 갖고 있는 3개의 사영방송은 미국 할리웃의 영화와 비디오를 방송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얻는다. 매체광고는 텔레비전에 집중되는데 대개 시장의 57%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데 텔레비전 광고의 80% 이상은 베를루스코니의 손에 들어간다. 그는 이러한 매체 경제력을 배경으로 언론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¹¹⁾

2) 국가권력의 통제

베를루스코니가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는 주로 극우파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90년대 초반 구 권력 엘리트가 몰락하여 국가권력의 공백기가 생긴 상태에서 그는 Forza Italia(전진 이탈리아당)라는 당을 창당, 스스로 총재가 되었다. 구 정치 엘리트들이 부정부패 혐의

10) 일간지는 텔레비전에 비해 영향력이나 대중성에서 크게 떨어진다. 신문 열독률이 낮고, 발행 부수도 하루 4백만 부에 그친다.

11) 베를루스코니가 지배하는 사영방송이 시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락에 심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텔레비전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Canzonissima'이다. '오로지 노래'나 부르고 즐기라는 뜻이다 (T. Jones, 2003). 이것은 정치를 잊고 즐겁게 살자는 텔레비전의 유희전략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전략을 충실히 따랐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오락화 시키는 유희 전략은 베를루스코니 제국의 기본 노선이었다.

로 대거 구속, 은퇴하여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 베를루스코니는 당을 급조하였다. 재벌-언론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드디어는 국가권력의 획득에 나선 것이다. 1994년 그는 돈과 핀넨베스트의 도움을 받아 쉽게 총리에 올랐다. 정권을 획득한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 RAI 이사진을 자파 인물로 재편하였다. 새로 임명된 경영진은 RAI의 경영 방침을 효율성, 생산성, 기업가 정신, 객관적 보도에 두었다. 마치 사기업의 경영 강령을 보는 듯 하다.

부정부패는 베를루스코니의 단골 메뉴이다. 1998년 법원은 베를루스코니를 회계 부정,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총리로 선출되었다. 총리 선출 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2003년에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개인 변호사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프레비티(C. Previti)는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베를루스코니가 1980년대 식품 회사인 SME를 인수할 때 문제가 되자 판사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연관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매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가스파리(Gasparri)법안을 냈고,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 2003년 이 법안은 매체 법으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일간지와 방송사의 겸영 제한을 없앤다.
- 3개 이상의 사영방송사를 소유한 회사는 일간지 소유를 금지한다.
- 미디어셋의 광고 수입 점유율 제한을 완화한다.
- 베를루스코니 소유의 Rete4를 분할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한다.
- 공영방송인 RAI를 점차적으로 사유화 시킨다.

겉으로만 보면 매체 법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베를루스코니의 핀넨베스트와 미디어셋의 매체 독점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가스파리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친 하원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주인 미디어 셋이 소유한 3개의 사영방송 채널 가운데 하나를 매각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첨가하였다(*The New York Times*, April 6, 2003, p.A5).

이에 분노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상원에서 심의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소유 규제 조항을 재수정하여 끝내 자신의 재산권을 지켰다.

3) 매체의 인적 통제

베를루스코니의 경영방식은 철저히 족벌에 의존하는 것이고, 자신의 심복을 주요 자리에 앉혀 대신 매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우선 부인은 일간지인 *Il Foglio*의 사장이며, 아들은 펀넨베스트 회사의 대주주이자 중역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 베를루스코니 동생 역시 극우파 신문인 *Il Giornale*의 사장 겸 편집장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개의 사영방송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매각하라는 압력도 크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런 비판을 다음과 같이 일축하였다.

나도 3개의 사영방송을 팔고 싶다.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한다. 자식들은 내가 일궈놓은 방송사를 엄청 아낀다. 이들은 대를 이어 내가 만든 사영방송을 경영하고 싶어한다(*The New York Times*, 2003년 5월 9일자 인터뷰에서. p.A3).

이것은 언론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베를루스코니의 전횡은 자신의 매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01년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그는 공영방송 RAI사장과 이사를 측근 인사로 채웠다.¹²⁾ 이사 자리에 베를루스코니의 최측근이자 극우파 정치인인 사카(Sacca, A)를 임명함으로써 RAI는 사실상 그의 사실 방송국처럼 움직였다.¹³⁾

그런 한편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였다. 베를루스코

12) 이전 정권이 임명한 문화계 인사도 좌파라는 이유로 대부분 제거하였다.

13) 다수당은 5명으로 구성된 RAI 이사회의 이사 가운데 3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베를루스코니가 2002년 사카를 이사로 임명하자 그는 자신과 가족 모두가 전진 이탈리아당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표하였다.

니가 임명한 RAI 경영진은 정권에 비판적인 두 명의 기사를 파면하였다 (Minarik, 2002). RAI는 두 기사가 선동적이고, 좌파 성향이라고 파면 이유를 둘러댔다. 2003년에는 이탈리아 최대의 일간지이자 국민적 신뢰가 높은 Corriere della Sera지의 보톨리(Bortoli) 편집국장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보톨리 편집국장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무턱대고 찬성하는데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부정 부패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Corriere della Sera지의 모기업인 RCS미디어그룹 이사회를 압박하여 그를 해임시켜 버렸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언론탄압은 기자의 분노를 샀고, 급기야 이탈리아 기자연맹은 소속된 기자와 함께 총파업을 벌였다(The Guardian, June 10, 2003).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RAI가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제작을 중단시키거나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동시에 RAI의 경쟁력도 떨어뜨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3개의 사영방송 채널로 시청자를 몰아 갈 수 있었다. 2000년 RAI의 3개 채널은 총 시청점유율이 49.2%였으나 2003년에는 44.1%로 떨어졌다. 광고수입도 10억 유로 달러에 불과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소유한 방송사의 40%에 불과했다(미디어뉴스, 2003. 3. 20).

이렇게 베를루스코니는 족벌소유-족벌경영체제를 고수하면서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언론파시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5. 영국 언론권력

1) 매체경제의 지배

루퍼트 머독이 사주인 뉴스 코퍼레이션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한편 영국에서는 위성방송 시장을 독점한다. 그는

3개 대륙에 걸쳐 175개 신문을 경영하며, 하루 4천만 장의 신문을 발행한다 (*The Guardian*, February 17, 2003). 사실 머독은 세계 매체시장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매체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머독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매체 사업가이다. 그는 모국에서 뉴스 리미티드(*New Limited*)로 시장을 장악한 후 영국으로 건너와 *News International*을 차려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 운영에 성공함으로써 축적할 수 있었다. 이후 머독은 미국 방송시장까지 진출하여 지상파 방송인 폭스 네트워크를 소유하였고, 24시간 뉴스 채널인 폭스 뉴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는 폭스 네트워크(지상파방송)-폭스 뉴스(24시간 케이블 뉴스채널)-뉴욕 포스트(일간지)-스탠더드(주간지)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면서 극우 이념의 상업주의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표 5>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 인터넷서비스사의 매체소유현황

분야	매체 관련 기업
신문	The Times(일간지, 63만부), The Sun(일간지, 362만부), Sunday Times(주간지, 130만부), News of the World(주간지, 384만부)
신문보급	Convoys Group(신문배달회사)
위성방송	BSkyB(37.6%), Sky 멀티채널, Fox Kids, Star TV, 그라나다 스카이방송(49.5%)
라디오	Sky 라디오(71%)
출판	하퍼콜린스
잡지	Shoppers Friend 외 5개
뉴미디어	supergoals.com, page3.com, firedup
기술	News Digital Systems(위성방송용 수신제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머독은 영국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 뉴스 인터넷서비스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축구 구단도 소유한다.

영국에서 루퍼트 머독은 The Times-The Sun-BskyB로 이어지는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 특히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머독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다음 자료를 보자.

<표 6> 영국 일간지 시장 지배구조(2002년 기준)

자본	계열회사	산하매체	시장점유율(%)
News Corporation	News International	The Sun, The Times	34.2
트리니티-미러그룹		Daily Mirror	16.9
United 뉴스&미디어		Daily Express, Daily Star	14.3

각 분야에서 뉴스 인터내셔널의 지배력은 상당하다. 2000년 이전에는 3개 매체재벌이 일간지 시장의 74%를 점령하였고, 이중 루퍼트 머독의 뉴스 인터내셔널 사는 37%를 점유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3대 매체재벌의 시장점유율은 65.4%이다. 그런데 뉴스 인터내셔널의 시장 점유율은 34.1%를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시장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런 점유율이 2003년에는 다시 37%로 올랐다. 더구나 BskyB는 200개가 넘는 채널을 송출한다. 자신들이 직영하는 Sky TV는 5개 채널로 총 점유율은 5%이다. 이 외에도 머독은 영국 전체의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가정의 3/4를 통제하고 있다.

2) 국가권력의 통제

머독이 운영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은 대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저 그런 매체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극우파의 영수인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 총재로 당선되면서부터 머독은 정부 편에 섰다. 머독이 통제하는 매체는 선거 때만 되면 보수당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처의 혀 노릇을 하였다. 대처의 집권은 머독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당시 외국인이면서도 최고의 일간지인 더 타임스와 선데이 타임스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다시 BskyB를 설립하였다. 더 타임스-더 선-선데이 타임스-BskyB를 소유한 머독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의 한마디는 정책에 반영되었고, 그의 두 마디는 의원이나 장관의 목을 달아나게 하는 힘을 가졌다. 머독은 드디어 영국의 국가권력을 좌우하는 실력자가 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머독의 반대로 영국은 유러화에 가입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 그는 파운드화를 고집하

고,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미국에 종속된 경제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선동적인 보도로 일관하였다. 영국이 파운드화를 포기하고 유러화를 택하면 영국에 투자한 머독의 재산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머독은 자신이 소유한 매체를 이용하여 영국이 파운드화를 포기하면 금방 경제가 절단 날듯이 호도하였다. 영국의 경제적 자립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적 기사를 통해 유럽과 거리 두기를 하였다. 커뮤니케이션법안 역시 머독의 사유재산 팽창법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친 머독 지향적이다.¹⁴⁾ 하원의원들은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머독의 눈에라도 나면 선거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머독이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한편 머독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가장 앞서서 지지, 찬양하였다. 하지만 반전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2003년 3월 18일 하원에 나가 전쟁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실각을 모면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선(The Sun) 지는 다음 날 사설에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연설에서 목소리는 열정이 꼭 차 있었고, 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블레어 총리는 역사적으로 윈스턴 처칠, 마저릿 대처 총리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랐다. 자신의 정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연설을 한 블레어 총리는 왜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급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The Sun, March 19, 2003).

이것은 사주인 머독의 의중을 기사로 실은 것이다. 머독은 이런 말도 했다. “내 생각으로는 세계가 미국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더 중요한 점은 세계가 미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지 부시는 도덕적이고, 바르게 처신하고 있다(The Guardian, April 3, 2003).”

14) 영국에서 머독의 뉴스 인터내셔널은 매체 소유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도록 정부와 의회에 집요하게 로비하고, 압력을 넣었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법안은 미국 국적을 가진 루퍼트 머독이 지상파방송인 채널5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진 머독은 남들이 두려워 할 표현의 자유는 아주 쉽게 억압해버린다. 예를 들어 그가 소유한 뉴욕 포스트는 반전 연예인들을 ‘사담 후세인의 열렬한 지지자’로 매도하였다(2003. 3. 19일자). 팀 로빈슨, 손 팬 등 유명한 영화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라고 비판했을 뿐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후세인 정권을 강력히 비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뉴욕 포스트나 폭스뉴스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연예인들의 메시지를 마치 매국노 대하듯이 제멋대로 왜곡하고, 공격하였다.

머독의 매체는 정책이나 정치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논리와 증거를 갖고 말하지 않고, 선전과 선동 기법에 의존하여 대중의 감성에 자극한다. 이것이 먹히면서 머독은 사실상 국가 여론이며, 국가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3) 매체인력의 통제

루퍼트 머독이 통제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은 크게 네가지 방법으로 매체인력을 지배한다.

첫째는 족벌소유와 족벌 경영으로, 머독의 부인, 아들, 딸들이 주식과 경영을 도맡았다. 뉴스 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인 뉴스 코퍼레이션의 주식은 자신과 부인, 두 아들 그리고 딸이 나눠 갖고 있다. 경영도 부인과 자식이 직접 맡고 있다. 큰아들 라크란 머독은 뉴스 코퍼레이션의 운영담당 부사장이고, 작은 아들 제임스 머독은 BskyB의 상임이사이다. 딸 역시 스타 TV에서 중역을 맡고 있다. 뉴스 코퍼레이션의 족벌 소유와 족벌 경영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둘째는 머독은 수시로 편집국장을 비롯한 간부를 해고하거나 갈아 치움으로써 편집국에 위기감을 넘어선 공포감을 조성하여 철저한 굴종의 조직으로 변질시키는 방법이다. 인사권을 쥐 머독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편집국을 시시콜콜 간섭할 필요가 없다. 영국 가디언의 편집 부국장인 크리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머독이 직접 해당기자에게

전화해 기사를 써라 말아라하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편집국과 사주의 구조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통해 기자들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써서는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한겨레』, 2001. 10. 2). 여기에 반기를 든다면 누구든지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자신의 뜻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기자에게는 언제든지 해고라는 칼을 휘두른다. 폭스 채널의 애크리(J. Akre)와 윌슨(S. Wilson) 기사는 Monsanto가 성장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탐사 원고를 썼다. 이에 머독은 내용을 완화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기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바로 해고 통지서가 날라 왔다.

셋째는 노조를 없애버림으로써 종업원의 단결권을 싹부터 자르는 방법이다. 머독은 더 타임스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영권을 장악했고, 이후 회사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기자 등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괴멸시켰다. 이후 더 타임스는 노조 없는 신문이 되었다. BskyB도 마찬가지이다. 직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만들려 해도 경영진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2003년에는 BskyB 직원들이 매체산별노조(BECTU)의 가입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자 경영진들은 만약 노조를 만들면 모든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꿀 것이며, 인력을 외주화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¹⁵⁾ 결국 BskyB의 노조 설립은 실패하고 말았다.

<표7>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 매체에 스카우트된 정치인들의 이력

기자	소속매체	정치적 관계
브릿 훔	폭스 뉴스 해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테니스 파트너
토니 스노우	폭스 뉴스 진행자	조지 부시 대통령 연설문 담당 보좌관 조지 부시 대통령 매체 담당 차관보
존 포드호리츠	위클리 스탠더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연설문 담당 보좌관
존 엘리스	폭스 뉴스 간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촌

15) 영국은 산별노조 중심이다. 고용 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산별노조에 가입하려면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 노조원이어야 하고, 또 50% 이상이 노조를 승인해야 한다. 『동향과 분석』, 2003년 3월, 통권 170호.

넷째는 유력 정치인과 연이 닿는 사람을 기자나 간부로 채용하여 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유명, 유력 정치인과 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뉴스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매체에 스카우트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 등 세 나라의 언론권력 행태를 엿보았다. 이들은 돈과 정보 그리고 영향력을 무기로 사회 여론을 왜곡하며, 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보도 방향을 정하며, 미국 오락물에 의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매체자본이 극단적 자기 이기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나 진실 또는 민족, 시민의 생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정권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정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여 정권의 힘과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언론권력자들은 정권을 탈취해야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온다면 서슴지 않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

6. 맺는말

지금까지 베네주엘라를 포함하여 세 나라의 언론권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세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고자 한다.

첫째는 언론권력의 근간은 거대한 경제력이었다. 시장을 독점하는 거대한 매체기업은 자본의 논리, 사주의 권력욕, 시장 독점욕과 결합하여 국정을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도 전복하려 한다. 그리고 상당한 공급량이 언론권력의 기반이었다. 언론권력은 시장에서 선호되는 매체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물량 공세로 시장을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수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거대한 수용자를 기반으로 독점 지대를 뺏아낸다.

둘째는 국가권력과 매체인력의 통제 방식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권력 장악이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방

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공격하여 시민들로부터 이들을 격리시키려 한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언론권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관한 것이었다. 이들 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점자본, 국가권력, 매체자본이 하나가 되어 공공 영역을 사유화, 독점화 하였다. 매체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국가권력을 좌우하는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한 세 나라의 언론권력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이었다.

이 글에서는 언론권력이 독과점 횡포를 넘어서 직접 국가 권력을 차지하거나, 이를 넘어서 합법 정부를 붕괴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베네주엘라 상황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매체자본과 석유자본이 결합하여 서민의 편에 서는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등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권력을 제압하려는 시민 사회의 투쟁도 있다. 베네주엘라는 시민세력이 사영방송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언론권력에 맞서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기자들이 연대하여 언론독점에 반대하고,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언론권력의 횡포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을 이론적인 틀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언론권력의 토대는 역시 강력한 경제 지배력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항한 시민 사회의 저항 운동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미흡하나마 설명하였다. 매체를 두고 사적자본과 국가권력의 융합 현상이 현저하지만, 이에 대항한 시민 사회의 응집력도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끝에 언론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급기야 전쟁까지 선동하고,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낸 것은 이 글에서 얻은 소득이었다. 그럼으로 언론권력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화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언론권력에게서 공정성이니 진실성을 찾는 것은 무리다. 사주가 있고, 돈벌이가 궁극적 목적이며, 모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보도가 가능

하고 또 어떻게 진실한 보도가 가능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어느 누구도 매체소유를 집중시키거나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법제화의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유 지분이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고, 독점매체와 대등한 경쟁할 수 있도록 비 독점매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일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만큼 동시에 진행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진 (2003. 7. 4). 차베스대통령에 대한 옹호. 디지털말[<http://www.digitalmal.com>]
- 김진화 (2003). 미군이 언론을 좌우로 굴린다. 『시사저널』. 제706호.
- 이광석 (2000. 5. 3). 폭스 효과와 미 언론의 우익화. 『미디어오늘』.
- 이선필 (2001). 이탈리아의 신문산업과 지원제도. 『세계언론법제동향』. 하권.
- 심영섭 (2003. 7). 독일의 언론합병 규제 개혁 논란. 『신문과 방송』.
- Branston, G., & Stafford, R. (1996). *The Media Students' Book*. London: Routledge.
- Grunwald, A. (2002. 10). *Media Concentration Control and the Press*, Athens: Europe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 Harvey, D. (2002). The Art of Rent. *Socialist Register 2002*.
- Jones, T. (Jan 12, 2003). My Italian TV hell, Financial Times.
- Klein, N. (2003, March 3). Venezuela's Media Coup. *The Nation*.
- Lemoine, p.(August 2002), Venezuela's Press Power, *Le Monde diplomatique*.
- Miller, M. C. (2002). The Big Ten Media Giants. p.Phillips et al.(eds.). *Censored 2003*. NY: Seven Stories Press.
- Minarik, M. (2002). Media Policies in Italy & United Kingdom, IPF Interim Report.
- Molle, A. et al. (2003). The Italian media landscape. European Journalism Centre.

- Mosco, V.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NY: Sage.
- Petley, J. (2003). *The Reregulation of Broadcasting or the Mill Owners' Triumph*. London: CPBF.
- Straubhaar, J. (1998). Brazil. A. B. Albarran. et al.(eds.). *Global Media Economics*. Ames: Iowa State University.
- The Economist* (6 March, 2003). The newspaper industry: Fading.
- Tuchker, C. (March 2003). Chavez On the Offensive, *Z Magazine*.
- Williams, G. (2002. 9). European Media Ownership, Brussels: European Federation of Journalists.
- Vogl, F. (May 9, 2001). Journalism and Power: Why Ownership Matters. *Speak Out*.
- Wilpert, G. (Oct 27, 2002). Why Venezuela's Middle Class Opposes Chavez. *Znet*.
- Wilpert, G. (2003). Collision in Venezuela. *New Left Review*. May/June. 101-116.

(최초투고 2003. 5. 27, 최종원고제출 2003. 7. 23)

A Political Economy of Media Power

Seung-Soo Kim

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a fundamental source of media power?" and "How can the media power dominate market?". This essay aims at answering the questions. I made my selection of countries such as Venezuela, Italy and UK for this article with a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his analysis found evidence that an enormous conglomerate ownership, and alliance or convergence between media and political power are two fundamental source of the media power. With the integration of newspaper and television the media monopoly increased their supplies and political influences as I have shown. Despite the growing threat of media monopoly power to democracy and public interest, in recent years, governments worldwide have chosen to ease regulations.

Key words: political economy, media power, state, domination.